

# 광주북구청장, 현 청장 강세 속 재격돌 관심

### 맞수 대거 빠지며 문인 청장 우세 분위기 '풀뿌리' 시의회 의장 출신들 대거 도전 강백룡 전 부구청장, 국힘 후보로 출마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고심했던 문인 현 구청장이 재선에 나선다. 현 구청장의 강력한 맞수로 여겨졌던 김동찬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안평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꺾으면서 문 구청장의 재선가도에는 파란등이 켜진 상태다.

문 구청장에 맞서 전직 광주시의회 의장 출신인 이은방·조호권 전 의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은 문 구청장에 맞서 도전자들이 변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1987년 직선제 이후 호남에서 최고 득표율을 얻은 국민의힘 인사들도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선거 열기를 달궈갈 전망이다.

문 구청장은 고시 출신으로 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청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쌓은 행정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중앙행정을 경험하면서 쌓은 관록이 재임 기간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에서 선전하는데 유감없이 발휘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북구 내 공직사회를 일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는 데 앞장서

면서 북구가 전국단위 평가에서 다수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문 구청장은 재임 기간 대통령상 6번, 국무총리상 6번을 수상하면서 이른바 '6-6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폭넓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한 체급 높은 광주시장 출마까지도 점쳐졌지만 최근 재선 도전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전자들이 잇따라 방향을 선회한 것도 문 구청장에게는 호재다. 북구의원 출신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김동찬 전 의장이 일찌감치 북구청장 선거를 준비했지만 올해 초 출범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급진화했다.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이름값이 높은 안평환 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도 최근 광역의회로 방향을 틀고 선거운동 중이다.

다만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따른 쇄신안을 이유로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의 합종연횡 등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북구청장 재수에 나서는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006년 북구의회의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내리 북구를 기반으로 광역·기초의원을 역임했다. 오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깊숙이 뿌리 내린 정치력과 조직력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문 구청장에 석패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함에 따라 당외가 아닌 당내에서 재차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도 출마를 굳혔다. 현재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출마 예상자(가나다순)



광주북구청장 출마 예상자.

로 있는 조 전 의장은 금융계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광주시의회 등을 거치면서 의정과 행정영역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게 강점으로 꼽힌다.

광주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무경험과 지방행정 경험을 토대로 한 '경제통'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던 국민의힘에서는 강백룡 전 광주 북구 부구청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강 전 부구청장은 건축공무원 출신으로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 광주 북구 부구청장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폭넓은 경험을 섭렵했다는 평가다. 최근 올해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정하나라 광주시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재환기자

# 광주광산구청장, 현역 없는 '무주공산' 최대 격전지

### '불출마' 김삼호...이용빈·민형배 지원 후보 '유리한 고지' 민주당 경선 9명 난립...컷오프 과정서 합종연횡 가능성도

김삼호 현 구청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김 청장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가 경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산갑 이용빈국회의원과 광산을 민형배 국회의원이 지원하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공천 경쟁 후보군은 9명이나 난립해 본 경선을 위한 컷오프 과정에서 합종연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찌감치 출마체비에 나선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은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으로 이룬 성과를 인정받아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가보훈처에서 일했다. 2017년부터 2년 10개월 동안 청와대 정무기획·사회조정·사회통합 비서관실에서 두루 일하며 갈등조정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 구정과 국정의 다양한 경험을 장점으로 꼽힌다. 민형배 의원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총선 광산을 민주당 경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민형배 현 의원에겐 고배를 마신 박시중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문재인정부 1기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역할을 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청장 선거로 선회한 박 전 행정관의 가세로 경선전이 그 어느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을 지내다 최근 사표를 낸 윤난실 전 비서관도 구청장 출마 결심을 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경선에서 김삼호 현 청장에게 패한 후 경상남도 참여혁신단장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청와

대 비서관으로 일했다. 윤 전 비서관도 민형배의원 사람으로 분류돼 최 전 행정관과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노사상생형 광주일자리 설계자로 평가받는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부시장은 오랜 기간 산업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민선 6기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공장노동자 출신으로 산업과 행정을 두루 잘 알고 있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윤봉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재도전에 나선다.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교육감과 광산구청장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윤 의원은 광산갑 이용빈 의원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조직 및 인지도 등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김학실 광주시의회 전 교육문화위원장도 도전한다. 30년간 아나운서 길을 걸어온 김 전 위원장은 대중성과 넓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 전 위원장은 지역업체 육성과 출생지원금 확대 등 광주시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힘써 지속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지낸 김이주 광주시의원도 재도전한다. 제4대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2006년 광산구청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 의원은 시의원을 하는 동안 공부하는 의원으로 실력파로 통했다. 강한 추진력과 실행력이 돋보인 김 의원은 지역내 해결사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성수 전 광산구부구청장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40여년 공직 생활 중 33년을 광산구청에서 근무한 이 전 부구청장은 9급 공무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초자치단체에서 3급 부이사관까지 승진한 임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영순 전 광산구의회의장도 청정에 도전한다. 2010년 광산구의회 의원으로 출발해 2014년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뒤 광산구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 됐다. 대선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 예상자(가나다순)



광주광산구청장 출마 예상자.

을 앞두고 최근 민주당에 복당했다.

임형택기자

<b>호남신문</b> www.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b>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b>동부취재본부</b>	<b>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b>	<b>(061) 905-2011</b>
<b>서울취재본부</b>	<b>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b>	<b>(02) 2238-0003</b>
<b>기사제보 (062) 222-2580</b>	<b>광고직통 (062) 228-2580</b>	<b>팩스 (062) 222-5547</b>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